

## 哲學에 影響을 끼친 科學者에 對하야(3)

金容權

더욱이 『데칼트』는 『가리레오』의 學說을 承認하면서 그 學說의 迫害됨을 보고 그것을 公表하기를 避하였었다고 한즉 이 點만으로 보면 亦是 『가리레오』 등의 物理說을 應用하지 못하든 『베-콘』과 □□하는 바가 없는듯 하지만 그 理解도와 自己의 創案 等に 잇어서는 比較할 것이 없을만큼 優位에 잇었던 바는 多言을 不要는 바이다. 그리고 이 數學的 物理學的 哲學이 其□ 後의 大陸哲學에 多大한 影響을 맞이어서 其進路를 決定하였다함도 또한 掩蔽키 어려운 事實이다.

그와 같이 『데칼트』의 哲學은 數學 物理學的의 影響을 받은 것이며 自己 亦是 이러한 部門에서 여러 가지 創見을 提出하였으므로 그가 此種 科學의 指導者가 되었으며 其門人은 이런 方面을 繼承하야 發展한 者도 잇었으며 따라서 『데칼트』派의 物理學者도 □□하게 되었지만 一面으로는 또 그 學說의 主要 問題로서는 物心關係 等の 形而上學的 問題를 갖이고 잇었다. 이 點에 關한 彼自身の 解釋은 □의 一部에 身心 交涉의 機能을 認知함과 같은 매우 素朴한 生理的 說明에 그치였지만 그런 態度는 또 一面에 잇어서 其學說에 生物學的 根據가 存在함을 想像케 함이 었다.

그러나 『데칼트』에 잇어서는 生物 現象은 모든 純機械的으로 說明할 수가 잇음이 『하-뢰-』의 血液循環되는 理致와 같이 되는 限에 잇어서 비로소 科學的으로 되는 것인데 이에 編入치 못할 生活現象은 物體作用과 全然 別異의 精神現象으로 特別한 形而上學的 領域에 屬한 것으로 되어잇으므로 참된 科學으로서의 生物學은 아직 數學 物理 等과 對立함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其哲學에 影響된 科學으로서는 結局數學인 『프라톤』型에 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와 同様の 傾向은 다른 近世 初期의 代表者되는 『스피노-사』·『라이프닛스』에게도 볼 수가 있다. 『스피노-사』는 其 自活의 手段으로 眼鏡業을 擇하였을 뿐이니라 實際로 其 眼鏡 等を 使用하는 物理學的 方法에도 造詣가 만

코 其方面의 交友도 만헛으며 『라이프닛스』로 말하면 처음 그를 其道의 專門家라고 仰視하든 일도 잇엇든 것이며 其哲學說도 物體 自己 保存의 作用을 그대로 精神의 原理에 應用함과 같이 純然한 自然主義였으며 其體系는 『에데이가』에게서 보는 것처럼 全然 幾何學의 組織에 擬한 것이다. 이것을 곧 唯物論者로 指目함은 조금 早計이지만 自然主義的 數學的 哲學을 說破한 사람임은 勿論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피노-사』는 物理學 上으로는 『데칼트』一派의 機械觀을 繼承하며 이에 關하야는 獨自의 創見을 不視함이 비록 없지만 이에 對하야 數學 物理學 上 獨創的 意見을 樹立하메 어느 點은 『뉴-톤』의 力學論에 入黨하고 『데칼트』의 機械觀을 駁하며 其活力의 概念에 依하야 後世의 『에넬키-』說을 唱導하고 兼하야 어느 點은 其微積分 發明 先後의 爭에서와 같이 『뉴-톤』에 對한 一敵國이 된 科學者 間에 地步을 占한 『라이프닛스』에 잇어서 우리는 數學的, 物理學的 哲學의 好代表者를 얻은 것이다.

『라이프닛스』를 祖述한 『오르후』와 其他所謂 獨逸 啓蒙哲學의 其說의 異同에 不關하고 傾向으로서는 同様の 數學的 型式을 가지고 或은 數學 物理學을 理想으로 함은 容易하게 察知할 수가 잇지만 啓蒙運動의 本土라고도 할만한 當時의 佛國에서 假令 『볼테-르』와 같은 『뉴-톤』說의 熱心 宣傳者며 機械觀的 世界觀의 代表者를 가지고 잇었다. 其他 十八世紀의 佛國 啓蒙者를 一括하야 이 가운데 編入할 수 잇음도 □言을 不要한다. 當時 哲學者는 同時에 또 科學者이며 그리고 其神學은 物理學의 應用에 지내지 아니한다고 할 수가 잇게 된 것이다.

이제 上述한 바를 □하야 課題에서 要求된 바를 反省하면 그것은 實로 哲學에 彰□케 한 神學者에 對한 것이므로 以上 所述은 주로 科學에 刺□된 바 哲學者에 對하야 考察한 것인 즉 좀 題意에 相副치 아니한 것과 같은 感이 不無하다. 그러나 이 境遇에 잇어서 問題가 되는 科學者를 들면 結局 當時에 잇어서의 各國의 著名한 數學者 物理學者를 列記하게 될 것이다.

大概 當時의 諸國學者는 恒常文書의 交通을 行하며 그리고 『스피노-사』, 『라이프닛스』 등은 모다 書間의 往復, 或은 直接으로 面會한 바에 依하야 是等知名의 學者로 論議하고 잇어던 까닭인데 이 일은 彼等의 書簡集에 依하야 容易히 察知되는 것이다. 就中 『로빠-드·뽀일』과 같은 또는 『뉴-톤』과 같은 科學者는 其中 重要한 人物로 指目되는 바이다.